

김 중 명 (관동대학교)

역사 발생적 원리와 구성주의

역사 발생적 원리와 구성주의에 대한 관계를 조사하여 이들이 수학교육에 주는 중요성과 필요성을 조사하였다. 또한, 역사 발생적 원리와 구성주의 수학교육을 통하여 수학에 관한 철학과 교육관을 이해하여 현재 우리의 수학교육의 과제와 문제점을 발견하여 미래의 수학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학생들이 실제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고 필요한 수학적 상황과 수학의 역사에서 수학적 개념의 발생과 그 발달 과정을 고찰하여 학생들이 보다 잘 이해 할 수 있도록 역사 발생적 원리에 따라 교재를 재구성하여 구성주의 학습을 활용하여야 한다.

학생들의 호기심과 흥미를 자극하여 자신의 학습의 목표가 확실한 가운데 수학적 활동으로 깊은 사고력과 상상력으로 형식화와 추상적인 수학의 이론도 이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구성주의는 학습에서 과거의 교사중심의 주입식 교육에서 학생중심의 학습으로 전환하여 학생 스스로 적극 참여하여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가지게 한다.

정보화 지식기반사회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개인과 주관적 경험을 중요시하는 구성주의적 수학교육이 요구되고 있다.

홍 영 희 (숙명여자대학교)

初期 群論의 歷史

수와 방정식의 이론이 주요 대상이었던 대수학이 군의 개념의 도입으로 현대 대수학으로 발전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19세기 중엽이후에 치환군과 변환군으로부터 추상적인 군의 개념이 정립되는 과정을 조사한다.